



저는 이운정 수녀입니다. 1991년에 세례를 받고, 2001년에 입회하여 2010년에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고향에서 나고 자란 제가 수도회에 입회를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특히 어머니의 걱정은 매일의 기도가 되어 지금도 저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첫 서원을 하고 풍경이 아름다운 충주에서 본당 사도직을 한 후 신학 공부의 기회가 주어졌고,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에서 2년간 공부하였습니다. 그 2년은 제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종신서원을 한 후 광주대교구 사회사목국 생명운동본부에서 사도직을 하였고, 교구 사회사목의 한 부분으로 장기기증 홍보 업무와 함께 요양병원 원목을 수행했었습니다. 상근 원목자는 아니었지만 매주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기도하고, 2주에 한 번씩 미사도 봉헌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원목을 하는 동안 한 어르신께 대세가 아닌 세례를 준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환자에게, 그것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에게 교리공부가 가능할까라는 걱정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채워주시는 하느님 덕분에 세례 준비를 함께 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 체험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리고 신자 어르신들이 치매로 인해 종종 자녀들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막힘없이 바치는 모습은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 되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생명운동본부 사도직을 마무리 한 후 시각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사도직을 하며 사회복지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가페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서 자주 어르신들을 뵙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매일 매일 더 약해져 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순하게 수용하며 사는 모습에서 '나이 들어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소서."





My name is Sister Lee Yun Jeong. I was baptized in 1991, entered the congregation in 2001, and made perpetual vows in 2010. Being born and raised in my hometown, my family was concerned and worried when I told them I was joining the congregation. My family's concern, especially my mother's, became a daily prayer for me and is what keeps me going to this day.



After making my first vows and serving as a parish sister in scenic Chungju,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study theology and spent two years in the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 at Catholic University. Those two years were invaluable in expanding my faith horizons.

After making perpetual vows, I served as a chaplain in a nursing home along with promoting organ donation as part of the social ministry of the Archdiocese of Gwangju. Although I was not a full-time chaplain, I visited the nursing home every week to pray with the residents and celebrate Mass with them every two weeks. I still remember the experience of not anointing of the sick but baptizing an elderly person while I was chaplain at the nursing home because usually, we are used to give the sacrament of the sick to the old people in nursing home. The story goes like this; I started out worried about the feasibility of catechizing a patient, especially an elderly person with dementia, but thanks to God, who provides what is lacking, it turned out to be a faith experience for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baptismal preparation.



The way of faith in the elderly, often unable to recognize their children's faces due to dementia, to offer the Lord's Prayer and Hail Mary without error is something I want to do when I became an elderly person.

After completing my ministry in Gwangju Archdiocese, I began to think about the value and necessity of social welfare while ministering at a facility for the blind, and now I am ministering at the

Agape Skilled Nursing Home.

I work in administration, so I don't get to see the elderly very often. But I'm learning about "growing old" from the way they live their lives, gently accepting their frailty every day. And I ask God with this prayer. "Lord, protect us like the apple of your eye."

